



‘국민가수’ 2주째 시청률 1위 TV조선은 역시 ‘오디션 명가’

14일 ‘국민가수’ 시청률 15.4% 지상파·종편 동시간대 최고 미스트롯·미스터트롯에 이어 타사 유사 오디션프로 압도

역시 TV조선은 ‘오디션의 명가(名家)’였다.

14일(목) 방영된 TV 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 (사진)에선 다른 방송사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거나 화제를 모아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도전자들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방송에선 신설된 타 오디션부를 비롯해 중등부, 선수부, 직장부 등에 출전한 도전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내일은 국민가수’는 시청률 15.4%(닐슨코리아 기준)로, 지난주처럼 지상파·종편 등 모든 방송을 통틀어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7.4%를 기록했다.

타 오디션부로 출전한 도전자들은 이미 타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았지만 오디션 프로의 끝판 격인 ‘내일은 국민가수’를 통해 국민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겠다 각오로 무대에 섰다. ‘보이스코리아’ 톱4 출신 지세희는 10년 전보다 훨씬 날렵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명불허전 고음 창법으로 울하트를 받았다. ‘슈퍼스타K 시즌 3’에서 우승을 차지한 울랄라세션 출신 박광선은 ‘비 오는 어느 저녁’으로 실력자다운 여유와 함께 탭댄스까지 준비한 진정성으로 울하트를 받았고, ‘팬텀싱어’ 출신 유슬기도 폭발적인 성량으로 ‘미지의 세계’를 열창하며

울하트를 받았다.

이어 의사부터 CEO, 복사기 수리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직장부에선 가수를 향한 진심이 담긴 도전자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직장부에선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겠다는 ‘내일은 국민가수’의 취지에 걸맞은 가슴 뭉클한 무대도 이어졌다. 21년째 무명 가수로 살며 휴대전화 판매부터 건설현장 노동일까지 각종 직업을 거친 진웅은 “무대에 선 것 자체가 감격”이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장밋빛 갈 그 입술’로 울하트를 받고 그간의 설움을 토하듯 눈물을 쏟았다.

‘내일은 국민가수’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연이은 성공과 함께 오디션 예능 프로 명가로 거듭난 TV조선이 나이, 성별, 국적 등을 불문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며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한 종합 오디션 예능 프로다. 방송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일은 국민가수’는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이미 방송이 진행 중인 타사의 유사한 오디션 프로를 압도하고 있다. MBN의 ‘조선판스타’와 JTBC의 ‘풍류대장’ 등 타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최근 방송에서 각각 시청률 3.3%와 3.8%를 기록한 반면 ‘내일은 국민가수’는 1, 2회 각각 시청률 16.1%와 15.4%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오디션이란 장르를 초월해 음악 예능으로 확대해 봐도 ‘내일은 국민가수’는 1등이다. 지상파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KBS의 ‘불후의 명곡(6.4%)’이나 MBC의 ‘복면가왕(6.3%)’과 비교해도 2배 넘는 시청률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사보팀

겨울성수기 회사콘도 추첨 신청하세요

겨울 성수기에 회사 콘도를 이용하려는 본사 사원을 대상으로 추첨 신청(표 참조)을 받는다. 원하는 사원은 업무포털(E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취재나 업무로 외근하는 사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 서무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글 OTP 보안 인증을 받아 E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IP를 통한 신청을 전화나 슬랙 등으로 한 것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이나 사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콘도사들은 매년 여름·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의 법인과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 접수를 한다. 이에 맞춰 본사도 각 콘도사의 추첨 신청 일정에 따라 일괄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회사가 추첨 참여를 통해 확보한 객실들은 성수기 콘도 이용을 신청한 사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된 뒤, 해당 사원에게 10월 말~11월 중순 중 예약 확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ES 리조트는 콘도사에서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곤지암, 휘닉스(보광), 오크밸리는 별도의 추첨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회사가 보유한 콘도가 다양해지면서 결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대명, 한화, 금

겨울 성수기 콘도 추첨 신청 일정

콘도명	접수 기간	결과 발표
대명	10/22~10/29	11/2
한화	10/5~10/24	10/28
용평	9/27~10/25	11/2(평창), 11/4(무창포)
롯데	10/18~10/29	11/5
알펜시아	10/11~10/22	10/27
라카이	11/3~11/9	미정
리솜	10/25~11/5	11/16

금호 숙박일이 주말인 경우, 원하는 날짜 2개월 전 3일간 추첨 접수

※곤지암·휘닉스(보광)·오크밸리는 따로 추첨 없음
※ES는 미정

호, 용평 리조트는 퇴실할 때 1박당 2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곤지암 리조트는 4만원이다. 그 외 콘도는 현장에서 숙박료 전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총무팀에 제출하면 회사가 1박당 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원 통장에 입금해준다(1년에 7박 내). 다만 보광 리조트는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주중·주말 모두)엔 1박당 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오크밸리는 퇴실할 때 현장에서 숙박료를 결제하지 않고 회사에 1박당 2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박해수·총무팀

손소독·마스크·거리두기 꼭 지킵시다



본사 편집동 입구 앞 미디어 보드에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코로나 예방합시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는 모습. 그동안 사원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줬기 때문에 조선미디어 그룹에선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

작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1년 9개월이 지났다. 그간 회사에 여러 번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일 없이 무사히 넘겼다. 회사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준 사원들의 협조 덕분이다.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출구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역 긴장을 유지하며 손 소독·마스크 착용·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길 사원들에게 당부드린다.

11월 초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는 아직 심각 단계다. 15일(금)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84명. 1000명대로 내려와 일주일째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2000명선을 넘고 있다. 언제 다시 코로나 폭증세로 넘어갈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사원들은 비록 거리두기 방안이 조정되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져도 되는 게 아니냐’며 한 번에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자. 위드 코로나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는 것이다.

사보팀 ▶4면에 계속